

# SUNBO NEWS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 80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PLUS2020 | 고객이 영업을 창출하는 명품 모듈 생산 초우량 기업

2016년 8월 15일

vol. 151

주요소식

## PI 프로세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추진



경영 전반에 걸친 PI(Process Innovation) 개선을 목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된 PI프로세스 개선 활동이 4개월여에 걸친 시범 운영을 마치고 7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회사는 지난 3월 PI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생산성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업무나 품목을 지속해서 재정비하여 각 조직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PI TFT(Task Force Team)를 꾸렸다. 3월 15일 TFT 킷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프로세스별 조직도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PI TFT은 주 2회 회의에서 업무 수행상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리 항목을 정하고, 각 규정, 기준, 표준, 지침,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전체적으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4월에는 PI프로세스를 확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완료된 프로세스는 5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6월까지 ERP의 BOM CODE 재정립, 소모품 표준화 및 발주방법 개선, 혼용 사용 중인 소모재 및 STOCK 자재 분류 후 재정립, 소모재 지급 기준 확립, 선급자재 발주 및 입고관리, 미발주 PIECE 관리, 도장공사 발주 및 입고 프로세스 개선, MAKER FLANGE 입고관리, STOCK 자재 발주 관리 등 총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완료했고 1개 항목 잠정 보류, 2개 항목은 취소되었다. 현재 진행된 PI프로세스 시범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다시 개선활동을 거쳐 전자 등록하여 활용하게 된다.

PI TFT는 PI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지난 4개월간 '글로벌 최고 수준의 PI프로세스 구축'을 목표로 핵심 업무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수행해 왔다.

PI프로세스 개선 활동은 현재 업무 프로세스의 비능률적인 요소를 줄이고, 낭비되는 비용을 제거하여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사내외 협력업체의 손익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올해 사업기획팀에서 세운 중장기계획이다. 사업기획팀을 비롯 TFT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 간 PI프로세스 전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개선된 PI프로세스를 통해 자재 발주 및 입고관리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T 관계자는 "PI프로세스 개선으로 회사의 중장기 발전 전략인 'PLUS2020'을 실현하고,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PI프로세스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을 표명했다.

### PROCESS 담당팀장

분류	PROCESS명	담당팀장
1	STOCK 자재 발주 및 입고관리	김태현 과장
2	선급자재 발주 및 입고관리	박문염 부장
3	도장공사 발주 및 입고관 프로세스 개선	이동준 부장
4	ERP BOM CODE 재정립	김갑진 차장
5	소모품 표준화 및 발주방법 개선	황지석 과장
6	MAKER FLANGE 입고관리	김태호 부장
7	미발주 PICCE 관리	윤용남 차장

방문

## 일본 미쯔비시중공업(MHI) 협력사 모임 (히코바에회) 우리 회사 방문



지난 7월 15일 일본 미쯔비시중공업(MHI) 협력사 모임(히코바에회:히코바에회)의 후쿠다(HUKUDA) 부장 외 21명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후쿠다 부장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다대1공장에 마련된 홍보관 견학을 시작으로 다대2공장, 구평1·2공장으로 이어진 투어에 동행했다. 방문단은 특히 우리 회사의 유닛(UNIT)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이번 방문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교류와 협력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에 최금식 대표이사는 "조선·해양산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고 화답했다.

수상

## 조선업 위기 극복 기여 공로로 부산시장 표창장 수상



7월 21일 부산광역시청 7층 시장 접견실에서 '부산시장 표창장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우리 회사 품질부 최경호 부장, 설계부 최순찬 부장, 영업부 유무성 차장 등 3명은 품질검사, 사내외 협력사 지도, 도면 오작 방지, 원가절감, 납기일 준수 등 그간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접견실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한 이날 수여식에는 최금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수상하는 임직원의 가족들도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수상자들은 "더 노력하라고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사소식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공로 인정받아 가족사랑대상 수상



7월 9일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6 가족사랑페스티벌' 행사 중 '가족사랑대상' 시상식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우리 회사가 '가족사랑대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족사랑대상'은 부산일보사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울·경 지역 기업·기관과 개인의 가족친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제정한 상이다. 부산일보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6월 7~26일 수상 후보 공고를 통해 접수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족사랑대상 등 기업·기관과 개인 2개 부문 총 8개 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평소 지역사회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가족사랑대상을 수상한 우리 회사는 2008년부터 임직원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 콘도 이용 지원과 문화 행사, 생일 축하행사 등을 시행해왔다. 2008년 중소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년 6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 기혼자 대상 조기퇴근 제도를 도입했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가족사랑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지만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치열하게 달려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일에 파묻혀 가족의 대소사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한 것들로 인해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족친화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에 행복이 깃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일보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부산시,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후원한 '가족사랑페스티벌'에는 서병수 부산시장,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장, 사회 각계 인사 등 부산시민 1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함나라 워킹맘·워킹대디'라는 주제로 남경주의 뮤지컬공연, 방승인 박경림이 진행하는 '가족사랑 토크 콘서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과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전시관 등을 통해 부산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회사소식

## 2016 상반기 원가절감 포상식 개최 원가절감, 일상으로 정착시키자

지난 7월 22일 다대1공장 옥상교육장에서 '2016 상반기 원가절감 포상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실시된 포상식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원가절감에 기여해온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상식 부사장의 진행 하에 개인 부문 포상자를 비롯하여 각 부서 팀장이 참석했다. 우리 회사는 급감하는 조선 경기와 수주가 하락 등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원가절감을 전사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임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늘려 경비 및 원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최된 원가절감 포상식 또한 인센티브제도의 일환으로, 원가절감 효과를 거둔 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참여 열의를 북돋우고 있다. 각 부서별/개인별로 원가절감 기여도를 A~E의 등급으로 나누고 절감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우리 회사는 원가절감 포상제의 도입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원가절감 의지를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상반기 원가절감 포상의 시상금액 규모는 총 1천 2백여만 원으로, 원가절감 성과를 거둔 개인부문 43명과 HSE, 경영지원, 다대2공장, 연구개발, 영도공장, 자재조달 등 6개 부서가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원가절감에 대한 포상은 경영환경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회사와 개인 모두의 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원들에게 추상적 개념의 애사심이나 의무감에 호소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직원들 개개인이 가장 잘 아는 업무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는 실천방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효과에 대한 이익을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회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고 있다.

최상식 부사장은 "임직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혁신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원가절감을 습관화하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며 "원가절감이 우리 회사의 주요 화두인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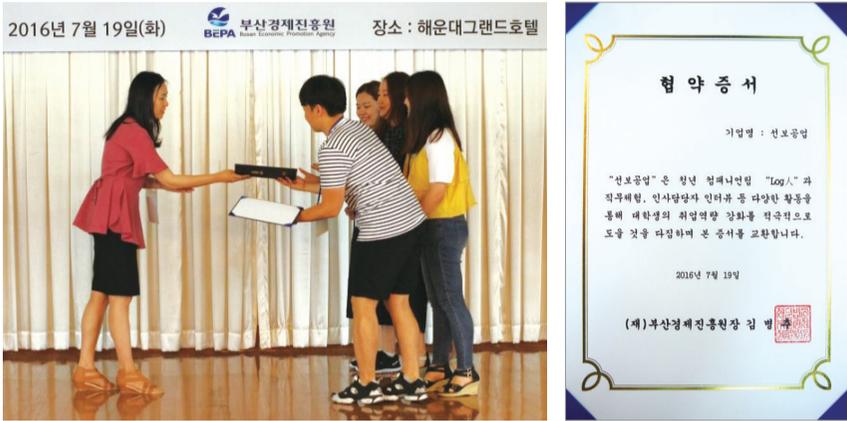


개인사상 대상자 (1~10위 외 43명)			
순위	이름	사업장	부서
1등	신유철	선보공업	본사설계
2등	김건우	선보하이텍	군산공장
3등	김도훈	선보공업	플랜트설계
4등	오세준	선보하이텍	영암설계
5등	김태경	선보유니텍	영도공장
6등	윤용남	선보유니텍	구평공장
7등	박귀남	선보공업	플랜트설계
8등	고중현	선보공업	본사설계
9등	안정빈	선보공업	전산
10등	김태호	선보공업	본사설계

부서 대상자			
순위	구분	부서	이름
1	부서	자재조달	이동준 부장
2	부서	영도공장	김태경 차장
3	부서	경영지원	김준호 과장
4	부서	다대2공장	여태웅 차장
5	부서	연구개발	최재호 부장
6	부서	HSE	김상진 차장

회사소식

# 사업기획팀, ‘청년 컴패니언십(Companionship) 프로그램’ 발대식 참가



우리 회사 사업기획팀이 7월 1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기업 & 청년 컴패니언 프로그램 발대식에 참가했다. ‘2016 기업 & 청년 컴패니언십’은 지역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에게 기업탐방과 직무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우수기업의 강점 홍보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회사 포함 15개 부산 기업과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지역 대학의 대학생 15개 팀이 선발되어 협약을 진행했다.

우리 회사는 동아대학교 학생 4명으로 구성된 ‘Log’팀과 함께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직무체험, 현직자 간담회, SNS 기자단, UCC제작, 기업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Log’팀과 홍보프로그램을 직접 구상해 운영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인지도 및 경쟁력 향상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og’의 팀장 김건호 학생은 “선보공업과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이 아직 대학생인 저희에게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부족하고 서툰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선보공업이라는 ID로 사람들의 마음에 로그인 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사내교육

# 유류 및 가스 입출고 프로세스 교육 진행으로 업무 효율은 높이고 정확한 입출고 관리가 가능



7월 26일 본사 옥상교육장에서 사업기획팀이 주관하는 ‘유류 및 가스 입출고 프로세스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ERP 내 유류 및 가스 입출고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함에 따라 시스템 도입의 성공적 안정화를 위해 사외협력사 및 사내 입출고 관리자, 단가관리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기존 유류 및 가스 입출고는 사외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입출고를 마친 후 내역은 월말 거래명세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량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담당자 미지정으로 사외협력사가 입고 후 담당자의 입고 확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8월 1일부터 유류 및 가스 입출고 프로세스가 도입되면서 유류 및 가스 입고 시 전산등록으로 구매부에서 일일 결산이 가능하고, 입고 내역이 전산으로 관리되어 월 주유량, 가스량 등 데이터 산출이 용이해졌다. 입출고 정보, 재고 관리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따라 사업기획팀은 유류 및 가스 입출고 프로세스로 취합된 연평균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절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사업기획팀 담당자는 “향후에도 다양한 ERP 프로세스 도입으로 회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좋은 글

## 걷기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자

걷기는 생활 속의 운동이기에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넘어지기 쉬워 부상의 위험성이 높다. 평소에도 바르게 걷는다면 생활 속 운동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바르게 걷는 법

- 가슴을 펴고 약간 당긴 자세에서 전방 10 ~ 15미터 앞을 바라본다.
- 호흡은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데 신경 쓰고, 평지에서는 네 걸음에 한 번이나 두 걸음에 한 번 길게 숨을 내쉬는 것이 좋다.
-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리 어깨와 골반이 크게 틀어지지 않도록 가만히 둔다.
- 무릎 뒤쪽을 편다는 생각으로 걸으면 다리 뒤쪽 근육이 발달한다.
- 보폭은 어깨너비 정도가 적당하며 뒤꿈치부터 체중을 실어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동한다.

걷기 운동법

- **제자리 걷기**  
허리를 펴고 서서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한쪽 무릎을 아랫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다. 이때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하고 1초간 멈춘다.
- **파워 워킹**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손은 달걀을 쥔 모양을 한다. 팔을 ‘L’자 모양으로 흔들며 평소보다 3배 빨리 걸으면 된다. 한 번에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지만 컨디션에 따라 조절한다.
- **트레킹**  
오르막에서는 보폭을 작게 하고 팔을 휘젓기보다 양어깨를 보폭에 맞춰 리듬 있게 움직인다. 내리막이 관절에 더 부담을 주니 경사가 급하면 갈지(之)자로 내려간다. 발 전체로 무게중심을 분산시킨다. 20분마다 5분씩 쉰다.



## 종아리 근육 이완으로 아킬레스건염을 예방하자!

종아리는 걸을 때마다 직접적으로 힘을 받는 부위이니만큼 적절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심할 경우 아킬레스건염이 생길 수도 있다. 종아리를 푸는 스트레칭법을 알아보자.

- 1 발을 앞으로 벌리고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다. 앞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면 뒤쪽 종아리 스트레칭이 된다.
- 2 정면을 보며 편하게 선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을 20~30회 정도 반복한다.
- 3 한 발로 서서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작을 하면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된다. 한쪽에 1분씩 번갈아가면서 한다.
- 4 종아리 아래에 폼롤러를 깔고 앞뒤로 30회 정도 마사지한다. 폼롤러가 없으면 동그란 물병 등에 수건을 씌워서 활용하면 된다.

사내교육

##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임직원의 기본소양 높여



최근 우리 회사의 교육열이 뜨겁다. '비록 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할 만큼 대내외 정세가 악화되고 있지만 임직원을 위한 교육을 증대하라'는 최금식 대표이사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7월 13일 실시된 '인문학으로 힐링하다-이순신 리더십' 교육과 7월 20일 실시된 '소통하는 조직에 꼭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8월 10일에는 다대공장에서 'FUN-FUN 웃음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순신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교육은 요즘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된 교육으로, 사하구 평생학습관과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에서 사외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회사에서 인문학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통 스킬 교육은 이른 시간에 교육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와커뮤니케이션 김미화 팀장의 열정에 힘입어 참석자들은 약 1시간 20분 동안 높은 집중도를 보였으며, 일부 직원들은 역사 및 고전강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HRD팀은 향후 다대공장에서 매월 두 차례, 구평공장에서 매월 한 차례 인문/교양 위주의 사내특강 커리큘럼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 8월 인문·교양 교육 커리큘럼

- 8월 17일 구평공장 FUN-FUN 웃음치료와 스트레스 관리
- 8월 24일 다대공장 직장인 이미지메이킹

사내교육

## ISO9001/ISO14001 개정표준 교육 실시



우리 회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의 2015년 개정판에 따라 시스템 전환을 대비하여 7월 9일과 7월 16일 총 2차에 걸쳐 품질/생산/HSE 등 각 부서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ISO(국제표준화기구)는 작년 9월 경영시스템표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HLS(High Level Structure)를 적용한 ISO9001과 ISO14001의 2015년 개정판을 발행한 바 있다. 기존 ISO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2018년까지 2015년 판으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이에 대비

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2015년 개정표준에 따른 시스템 전환 및 실행에 앞서 2015년 개정표준 요구사항의 의미와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한 후 개정 전 표준과의 전략분석을 통해 시스템 전환 방향을 이해했다.

교육은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끝이 났다. 참가자들은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접목한다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교육 참가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종합평균 4.09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HRD팀은 교육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교육 계획 수립 시에 더욱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 생일 축하합니다

- ☑ **본사** 박가희(08.10) 박귀남(08.18) 이형백(08.20) 김천기(08.29) 신용화(음08.01) 김규성(음08.05) 정지훈(음08.13) 최두영(음08.20) 박찬수(음08.27)
- ☑ **구평공장** 안문영(08.07) 이홍주(08.07) 강화진(08.08) 안 (08.13) 엄범기(08.15) 김점례(08.16) 조상연(08.17) 강유진(08.23) 이연호(08.23) 공대성(08.25) 황길성(08.27) 정종길(08.28) 박종웅(08.28) 양승현(08.28) 전동혁(08.31) 정정배(음08.06) 김광수(음08.15) 한상만(음08.15) 이동준(음08.17) 이권호(음08.20) 민병철(음08.21) 정진성(음08.23) 신현봉(음08.25)
- ☑ **영도공장** 박해진(08.01) 윤해웅(08.01) 김동국(08.02) 김용덕(08.02) 박희문(08.02) 박우장(08.07) 손홍채(08.10) 정영준(08.15) 김상철(08.15) 김 신(08.21) 김성진(08.22) 조원우(08.24) 김용태(음08.05) 김경태(음08.10) 정재희(음08.12) 신창현(음08.14) 김우현(음08.15) 안병래(음08.25)
- ☑ **군산공장** 최일남(08.14) 이병규(08.23) 김덕현(08.25)
- ☑ **영암공장** 티 엔(08.03) 상 크(08.29) 우 단(음08.12)

### 임사 기념일

- ☑ **본사** 노재태(08.02) 김은식(08.06) 김정민(08.07) 이우석(08.08) 김천기(08.10) 박석현(08.10) 고연주(08.10) 최경호(08.13) 이옥렬(08.13) 김정우(08.17) 김정현(08.17) 양윤모(08.18) 이규림(08.24) 임민지(08.24) 김원영(08.24) 김윤주(08.24) 임경민(08.24)
- ☑ **구평공장** 김영호(08.24) 김서훈(08.24) 안세현(08.24) 오화석(08.24) 강유진(08.24) 황보연(08.24) 신명환(08.24)
- ☑ **영도공장** 이영곤(08.10)
- ☑ **영암공장** 노성담(08.01) 김대영(08.04) 홍상의(08.24) 김도희(08.24)